

간송문화전 작품 및 전시관 보안·경비 협약 연장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은 DDP 디자인박물관(배움터 2층)에서 공동으로 <간송문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계약'(2013.11.1)과 '간송문화전 보안·경비 추가 보강 협약'(2014.4.30), '서울디자인재단 간송미술문화재단 간송문화전 보안 협약 체결'(2015. 작품 및 전시관 보안 · 경비 협약 (2015. 5.19)), '서울디자인재단 간송미술문화재단 간송문화전 보안 협약 체결'(2016. 작품 및 전시관 보안 · 경비 협약(2016.12.31.))에 의거하여 작품 및 전시관 보안·경비 협약을 다음과 같이 공동전시계약에 따른 전시관 운영에 준하여 연장운영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하고, 인력은 19명, 비용은 73,431,200원으로 한다. 국가 중요 문화재의 보안·경비에 적합한 보안업체를 '간송'이 선정하도록 하고, 작품보안 및 안전에 책임을 다한다.
2. 보안·경비 인력에 대한 비용은 매월 청구에 의해 '재단'이 '간송'에 지원하기로 하고, '간송'은 비용의 집행, 비용 정산자료의 구비 및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3. 보안·경비 인력의 운영 및 통제와 관련하여 '재단'과 '간송'은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계약'의 기본 취지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재단'은 '간송'의 의견과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4. 범위와 역할은 전시관의 보안·경비 및 순환·순찰 근무, 출입문 개폐, 특수수장고의 보안·경비 및 작품의 반출입 관리, 24시간 보안관리 및 운영상황실 근무, 전시운영에 포함되는 시민서비스 응대에 책임을 진다.
5. 협약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건 계약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원 계약에 의한다.
7. 본건 계약의 해석을 위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며, 적용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상·관습법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의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31일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성 우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